

‘버스 광고 100만원’ 지방선거 썬의 전쟁... “금권문화개선을”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광주·전남 곳곳에 각종 선거 홍보물이 난립하고 있다. 지방선거 특유의 다자 구도와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선거구 광역화까지 맞물려 선거판이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비후보들의 홍보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돈이 곧 경쟁력’이 되는 금권 선거문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선거판 조기 과열...연말연시부터 ‘홍보 홍수’

지방정가에 따르면 지난 연말연시 무렵부터 6·3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의 선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역 기반과 조직력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 특성상, 이번에도 어김없이 조기 과열 양상이다.

광주·전남에서만 광역·기초단체장 30여 자리, 기초·광역의원까지 주민 일꾼 420여 자리를 한꺼번에 뽑는 만큼, 출마 후보는 수천 명에 달한다. 그만큼 각급 선거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초반부터 인지도 경쟁이 불붙고 있다.

특히 이번 6·3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선거구가 더 넓어졌다. 기존 선거구 단위로 채비하던 후보들로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더 많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홍보전에 일찍이 뛰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주요 대로변과 교차로 곳곳마다 각종 정치 현수막과 현수기 등이 걸려 있다. 주택가나 교외 지역, 야산 등지에도 이른바 ‘족자형’ 선거 홍보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시내버스와 택배차 외부 광고판에서도 입지자들의 홍보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자금력이 곧 후보 경쟁력?...비용 ‘천정부지’

선거 홍보는 출마 예정 후보들의 이름과 얼굴, 소속 정당과 정견을 알리는 목적의 광고다.

‘민주주의 꽃’ 선거는 민주 헌정 질서의 핵심 제도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선거도 광고시장 논리가 작용하는 ‘머니 게임’이다.

가로형 현수막은 표준 규격 기준으로 소재나 해상도에 따라 1장 당 3만~7만 원짜리다. 50장 이상 대량 발주를 하면 장당 단가는 3만~4만 원대, 여기에 설치·철거 작업 인건비가 더해져 1장 당 5만~10만 원대가 시세다.

지정계시대가 아닌 가로수, 전신주 등에 예외인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정치 현수막을 불법으로 걸었을 때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1~3차에 걸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는 게시기간과 규격, 장수에 따라 수십~수백만 원에 이른다.

가로등 게시대에 걸리는 현수기는 1장당 2만 원씩, 가로등 양면 단가는 4만 원이다. 일정 구간 도로에 줄지어 걸어야 효과가 있어 기본 수십 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격이 작은 족자형 현수막은 제작·설치 단가가 1장당 1만원 내, 대량 발주하면 단가가 5000원대 안팎이다. 비교적 싸지만 인건비·과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30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에서 지방선거 출마 입지자들의 정당·후보명 광고판이 달린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 /뉴시스

다자 구도·선거구 초광역화... 연말연시부터 ‘조기 과열’ 현수막·버스·문자메시지까지... 예비후보 선거광고 홍수 과태료 감수, 선점 경쟁도... “정책 뒷전, 금권정치 위험”

료까지 감안하면 비용이 적지 않다.

사전선거운동 규제 전까지는 상업광고처럼 분류돼 합법인 버스나 택배차 광고는 기간, 대수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버스 광고는 1대당 옆면 광고는 70만원, 옆·뒷면은 100만원이 든다. 출마 예정 선거구 내 주요 노선, 운행 대수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승객이 많거나 중심 상권을 지나는 노선은 광고판 선점 경쟁마저 벌어지고 있다.

택배 광고는 열흘간 배송차 40대를 기준 비용이 1000만원 남짓이다.

선거철 누구나 한 번쯤 받는 ‘선거 스팸’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수신인 10만명에 1회 발송을 기준으로 단문은 총 400만원 안팎, 장문은 1200만원대다.

◆“금권 위험” “정책 실종, 선거문화 개선을” 우려

선거 광고 홍수 속에서 유권자들의 피로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데 선거철이 한창이다’, ‘어딜 가나 정치인 광고뿐이다’, ‘하루에도 수십 통 선거 스팸에 짜증이 난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때 이른 선거전에 염증을 느끼며 되레 정치에 등을 돌리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다육이 선거전 조기 과열에 따른 불법·과잉 홍보가 공정 경쟁 질서를 악화하고, 금권 선거문화 고착화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역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다. 선거법 90조에 따라 선거 120일 전부터는 선거 관련 각종 광고물 또는 광고 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선거의 경우 오는 2월3일부터는 선거 관련 각종 광고가 전면적인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미 선거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정치권 안팎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단체장 출마를 염두에 둔 한 후보는 “일단 ‘인지도’가 경선 통과에 중요해 불가피하다”면서도 “법정 선거비 외 지출이 많아 부담이 크다. 공약·정책 개발 등을 소홀히 하는 기회비용도 발생한다. 정책 경쟁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지자는 “청년이나 정치 신인에게는 사전선거운동 규제 기간 전 홍보비가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기성 정치인이나 재력가는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훨씬 많다. 균등한 기회 보장 차원에서 선거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출마 예정자는 “불법·편법 안 한다며 돈

2월	3일~ 예비후보자 등록 사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20일~ 예비후보자 등록 사도의원, 구의원선거
3월	22일~ 예비후보자 등록 군의원 및 장의 선거
5월	14~15일 후보자등록신청
	21일 선거기간개시일
	22일 선거인명부 확정
	29(금)~30(토) 사전 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6월	6일 3일(화) 선거일 (오전 6시~오후 6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6.01.30 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안 쓰는 후보만 손해 본다. 선거 홍보비를 어떻게 충당하는지 의문이다. ‘썬의 전쟁’으로만 흘러간다면 음성적 정치자금 후원이 판치고, 당선 이후 보은성 사업편의 제공 등 부패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후보 개개인을 알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돈’이 있는 후보가 유리한 구조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자정 노력과 함께 성숙한 유권자 의식을 기반으로 선거문화 개선 노력도 포시급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왼쪽부터박수기이귀순시의원, 차승세 교장, 정무창 전의장.

잇단 후보 단일화에 광산구청장 선거 ‘새판짜기’ 박수기·이귀순, 차승세·정무창 후보 단일화 현직 구청장 vs 단일 후보, 선거 판도 재편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판도가 잇단 후보 단일화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를 앞두고 합동연명으로 새 판이 짜여지면서 6월 선거는 현직 구청장과 단일후보 간 경쟁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박수기·이귀순 의원은 3일 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통합 등 급변하는 정치상황 속에서 구청장 출마후보군을 빠르게 정리해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천심사 서류제출 시한이 7일로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점도 단일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수기 의원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귀순 의원은 9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단일화 방식은 설문조사 형태의 여론조사로, 휴대전화 문자발송 방식으로 비공개 진행된다. 5~6일 이틀 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9일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달라한 후보는 시의원으로서 통합특별시 관련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선출된 후보는 구청장 선거에 집중하기로 했다.

차승세 광주노무현시민학교교장 정무창 시의회 전반기 의장의 단일화에 합의했다. 여론조사 없이 정 전 의장이 차 교장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두 후보가 세를 결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경선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현직 구청장과 단일화로 압축된 후보들 간 경쟁 구도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그동안 광산구청장 후보군으로는 박병규 현 구청장을 비롯해 박수기·이귀순 시의원, 차 교장, 박광식 전 민형배 국회의원실 보좌관, 정무창 전 시의회 의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돼 왔다.

현재로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박병규 구청장과 단일화로 세를 모은 도전자 간 대결 구도가 유력하다.

광산갑 지역구에 지지 세력을 불려온 박 구청장과 광산을 지지기반으로 한 도전자들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갑·을 지역구간 세 대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박광식 전 보좌관의 행보도 변수로 꼽힌다. 현 광산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박 전 보좌관은 같은 지역구인 박수기·이귀순 시의원의 단일화에 동참하지 않았다.

박 전 보좌관이 이들의 단일화와 상관 없이 출마를 확정하면, 광산을 지역 조직과 표심이 단일 후보로 온전히 결집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준행 기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섭(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